

## 협회 독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II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

### 발기인 총회 개최 등 독립을 위한 험난한 여정 시작

이로써 설비공사업계는 1989년 7월 1일 건설업법 개정, 시행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동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되자마자 협회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기인총회에서 발기위원회 위원장에 이동락, 부위원장 박인구를 선임하고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빠른 설립 추진을 단행하였습니다. 발기인총회에서 “설비공사는 건설업의 주종을 이루는 각종 산업공장과 공공건물 및 주택 등 모든 구조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핵심시설을 담당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따라 설비시설이 대형화·고도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설비공사업계는 비약적 기술 탐구와 시공능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건설협회 심상일 회장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비공사협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 정치적인 이용 수단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건

설업법 개정에 설비공사협회 독립(안)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당시 공화당 총무였던 이○○ 의원에게 부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기에 주무부서인 건설부 건설진흥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과 당당한 신념을 가지고 임했기에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승리의 주역은 감히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집착과 강렬한 의지, 그리고 집념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신 이동락 회장의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락 회장은 대외적으로 활동 할 때나 혹은 대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가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박인구든 누구든 항상 꼭 같이 가는 습성이 있어서 국회나 건설부, 건설협회에 일이 생길 때마다 바늘 가면 실가듯이 누군가 동석해야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하는 중에도 이동락 회장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또 다음 일에 적극 대처하고 행동을 개

시하는 습성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슬아슬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고민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업계는 설비공사 독립을 위해 추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추진위원은 이동락, 박인구, 김영호, 김정한, 박용한, 이유중, 조준택, 정승일, 홍평우로 구성되었고, 수시로 조찬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진행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 독립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큰 산이 가로 놓여 있어서 당시 오용운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당 간사인 조진형 의원 외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독립법 마련에 제일 반대가 심했던 대전 출신 이○○ 건설분과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 독립자금 모금, 이화회 조직 등 독립을 위한 본격 활동

협회 분리 독립 추진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뒷받침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각 시·도협의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독립자금 모금에 호소를 한 결과 우선 부산사에서 윤호근 회장을 비롯하여 김재율 회장, 대전 강성근 회장, 광주 정병용 회장, 경기도 김근희 회장, 대구 장동원 회장 등과 서울에서는 정국현, 김인근, 박종학 회장께서 적극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금한 결과 일천삼백오십만원(13,500,000원)이라는 큰 돈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선 인건비와 추진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설비공사 독립단체 설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뜻을 모으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

론에 따라 ‘이화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때가 1986년도였으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이화회 멤버는 이동락, 박인구, 김영호, 김정한, 김상열, 서광문, 박용한, 이유중, 엄재만, 노재우, 조준택, 정승일, 홍평우, 한계원 등이었습니다. 이화회를 통해서도 자금모금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승일 회장께서는 주택공사에서 기계실 옥외 배관공사를 분리발주로 낙찰받은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독려했고, 낙찰 회사들은 성금을 성의껏 내는 등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독립협회 추진사업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승일 회장과 운영근 사장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비공사 독립단체 설립목표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설비공사업계가 일치단합한 대표기관으로서 업계의 위상을 공고히 지키는 강력한 의지를 구현한다.

둘째, 설비공사업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업계의 실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업계의 공신력제고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정보교환에 매개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일반건설업계와의 상부상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정거래를 통한 원·하도급 질서를 조장하며 여타 전문건설업계와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한다.

넷째, 설비공사업계의 기업안정을 위한 공사수주 영역의 확대창출과 공사비 적정단가 수주방안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노임·자재 등 공사 가격의 현실화 제도 개선을 역점 추진한다.

다섯째, 기계설비관련 학계와의 산·학협조를 강화하여 공법개발에 주력하며, 설비기자재업계와의 유대강화로써 신기자재 건설 및 품질향상 유도과 공급원활화 및 가격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여섯째, 설비공사 기술인력의 자질향상과 공급안정을 위한 교육계획 등을 연구추진한다.

일곱째, 설비공사의 해외시장 진출방안을 개발하여 입법추진한다.

1989년 8월 2일에는 설비공사협회 발기인위원장 명의로 전문건설협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첫째, 건설업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건설협회와 설비공사협회의 상호협력 사항과 관련하여 설비협회 측 정관에 삽입할 내용을 보내 줄 것

둘째, 과거 전문건설협회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분가 독립한 것과 똑같이 설비공사협회에 전문건설협회의 재산분리 이전과 회원의 회비를 비롯한 권리의무승계 등 관련서류 업무 등의 인계사항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창립 시 대한건설협회가 취한 절차와 조례를 적용하여 줄 것

셋째, 전문건설협회 총회 결의 및 설비협회 정관규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건설협회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업법·시행규칙 통과 후 전문협회와 막바지 분리작업 착수**

드디어 1989년 7월 1일 건설업법이 통과되고

동년 7월 18일자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통과되자마자 전문건설협회와 설비공사협회 간의 분리 업무에 따른 재산이관 문제로 많은 회의를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건설협회가 성장·발전해 오는 동안 함께 노력했던 설비업종의 협회 설립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반면, 정관 규정과 법률적 해석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처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회장단 회의를 수차례 걸쳐 진행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측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 김영빈, 설비협회 측 부회장 박인규, 상임이사 이재희 등이 수차례 회동을 한 결과 건설부 협상안을 기준으로 배분원칙을 정하고 재산 및 모든 이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및 건설부장관 승인, 정식 출범**

드디어 업종별 협의회로서 처음이자 마지막(현재까지 전문의 25개 공종 중 업종별 협회로 독립된 공종은 기계설비 하나임)으로 1989년 10월 27일 힐튼호텔에서 많은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설비공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에 이동락, 부회장에 박인규 등 초대 임원선출을 비롯하여 정관, 예산, 사업계획 등을 확정짓고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설비공사협회는 1989년 11월 25일 건설부장관의 인가와 승인을 득한 후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 회원사는 1989년 5월 기준으로 서울 635개사, 부산 80개사, 대구 47개사, 인천 45개사, 경기 68개사, 강원 11개사, 충북 14개사, 대전·충남 49개사, 전북 26개사, 광주·전남 55개사, 경북 38개사, 경남 86개사, 제주 11

1989년 11월 25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한 우리협회는 지난 26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선 명칭이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협회의 명칭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회원가입 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복수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기계설비건설협회로의 명칭 변경은 플랜트, 가스, 자동제어 등 기계설비의 전문성 제고와 녹색건설 리드 및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변경된 것입니다.

회원사 수는 1989년 창립 당시 1,165개사에서 2015년 현재 6,985개의 기계설비공사업체 및 가스 시설시공업체(제1종)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6배 정도의 성장과 함께 기성실적은 1989년 1조1,833억원에서 2014년 16조4250억원을 기록하여 16배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사 등 총 1,165개사가 분포되었습니다. 기성 실적은 1987년도 7,464억7천8백만원, 1988년도 9,503억3,200만원, 1989년도 1조1,833억원으로 추계되면서 전문건설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성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업종별 협의회에서는 설비공사협회 독립을 본 후 제일 먼저 미장방수협의회를 필두로 조경식재협의회, 토공협의회 등 여러 공종이 분리·독립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협회는 많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1989년 11월 25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한 우리협회는 지난 26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선 명칭이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 1998년 4월 14일 '대한설비건설협회'로, 2015년 5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협회의 이러한 명칭 변경은 199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회원가입 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복수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기계설비건설협회의 명칭 변경은 기계설비가 최근들어 건축물

에 차지하는 기계설비의 비율이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내외, 병원 및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30%, LCD 반도체 클린룸·플랜트 등은 50%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설비건설에 대한 대중 인식은 급수, 위생 등 전문성이 부족한 과거의 단순설비에 머물고 있어 플랜트, 가스, 자동제어 등 기계설비의 전문성 제고와 녹색건설 리드 및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회원사 수는 1989년 창립 당시 1,165개사에서 2015년 현재 6,985개의 기계설비공사업체 및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6배 정도의 성장과 함께 기성실적은 1989년 1조1,833억원에서 2014년 16조4250억원을 기록하여 16배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 조합원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설립(1996. 5. 18)하였고,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2014.11.6.)을 설립하여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